비에 젖은 초록 교정 봄비가 내린 1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의 싱그러운 연초록 가로수 사이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11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인 15일께 한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교육청 핵심 현안사업 무더기 퇴짜

함평 골프실습장, 나주 매성초·중 신설 등 6개중 5개

교육부 투자 심사 '재검토' 판정…창의예술고만 추진

전남지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무더기로 퇴짜를 맞았다.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과 맞물려 빚어진 일이지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교육 현안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실시한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서 도교육청의 6개 사업 중 5개를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시·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신설계획의 마지막 검증 절차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은 애초 ▲함평골프고 인근 교육용 골프실습장(18홀) 설치 ▲나주 매성초·중 신설 ▲순천 삼산중 이설 ▲여수국제교육원 ▲창의예술고 신설 방안을 올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창의예술고 신설 사업만 적정 판정을 내렸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들 사업 모두 도교육청의 역점 사업으로 무더기 재검토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적기에 사업을 추질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장, 교육용 골프실습장 설치사업의 경우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4일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KLPGA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현안 사업으로 야심차게 내걸었던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전용 골프실습장 부재, 장거리 고난이도 실습 코스가 없는 데 따른 남자선수 육성의 한계 등을 감안, 미래를 이끌어나갈 지역 골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용 골프실습장' 설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점을 내세워 교육부(100억)와 다른 부처 등에서 300억원을 지원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골프장 설립 사업계획을 올렸다가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나주 혁신도시 인구 증가에 맞춰 유입 학생들을 수용할 초·중학교를 신설, 인근 초등학교 과밀화를 막겠다며 제시했던 매성초(281억)·중학교(224억) 신설 계획도 '개교 시기 조정'을 이유로 재검토 판단을 받았다. 순천 삼산중학교 이설 계획도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 측은 학생들의 신도심 이동으로 인한 기존 원도심 내 학교 통폐합 등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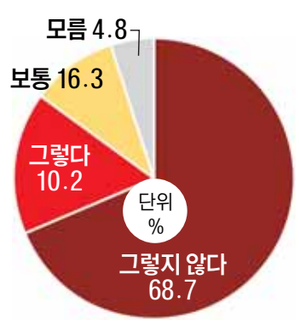
여수시가 교육국제화특구라는 점을 활용, 여수시 3청사(205억원 상당)를 무상 제공하며 조성키로 했던 가칭 여수국제교육원 설립도 추진력이 떨어지게 됐다. 사업 추진하는 데 46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운영·인건비 확보 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는데다, 사업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게 교육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부권 예술고 설립 계획으로 관심을 모았던 창의예술고 신설 계획은 '적정' 결정이 내려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174억원을 지원받는 등 360억원 규모의 신설 방안을 제출했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심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들 사업들이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무더기 재검토 판정을 받음에 따라 현안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질 지 우려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학살책임자 처벌 잘 이뤄졌다



국민 73% "5·18, 민주화에 기여"

5·18재단 조사…61% "왜곡 심각" 69% "학살자 처벌 미흡"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5·18민주화운동은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한 5·18 인식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가 5·18은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었다는 질문에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8%였다.

5·18의 한국 민주화 기여도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 72.8%가 동의했다. 5·18이 북한과 연결됐느냐는 질문에는 77.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의견은 9.6%에 그쳤다.

5·18 훼손(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61.2%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11.4%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내놨다. 5·18 진상규명이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5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학살책임자 처벌이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68.7%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5·18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56.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피해자 배상이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53.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32 해짐 19:26 달뜸 09:41 달짐 23:52

포근한 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12/25	보 성	맑음	12/23
목 포	맑음	12/20	순 천	맑음	13/23
여 수	맑음	13/19	영 광	맑음	11/23
나 주	맑음	11/24	진 도	맑음	12/20
완 도	맑음	13/22	전 주	맑음	12/24
구 례	맑음	12/24	군 산	맑음	11/21
강 진	맑음	12/23	남 원	맑음	12/23
해 남	맑음	11/22	흑산도	맑음	11/17
장 성	맑음	11/2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	0.5	남~남서	0.5
	먼바다	서~북서	0.5~1.5	남~남서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남서~서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남서~서	1.0~1.5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남서~서	0.5~1.5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5:33	10:37
	17:36	22:41
여수	00:06	06:07
	12:13	18:16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2/26	13/26	14/25	15/24	15/21	15/26	13/26

전두환 회고록 나오나 안나오나

全 "출판 밝힌적 없다"…시공사측 "출간계획 없어"

여론 엿보다 철회 가능성도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있나, 없나.'

한 측근의 입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내 출간할 것으로 알려진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은 없다. 없으니 출간도 없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5공(共) 측근들이 10일 전했다.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대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지난달 27일 전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에서 '나는 회고록을 낸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회고록 출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순자 여사 뿐만 아니라 당시 회동을 주관했던 천태종 대종사 운덕스님, 스님의 비서, 정호용 장군, 고명승 장군이 함께 들은 내용으로, 회고록 발간은 모두 거짓이고 소설이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회동에서 한 측근이 "5·18 당시 발포명령에 내가(전 전 대통령)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회고록이 작성됐다는 보도를 접한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설명하자 "회고록을 내지도 않는데 그런 보도가 나와 섭섭하다는 반응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도 "이순자 여사 본인이 회고록을 낸다는 것은 들은 바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준비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을 출간할 것으로 애초 알려진 시공사 측도 "적어도 우리는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논의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문학상 본상 '금요일엔 돌아오렴'

5·18기념재단은 올해 처음 제정된 '5·18문학상 본상' 수상작으로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선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은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기록단이 집필한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와 르포로 구성됐다.

5·18재단은 "11명의 작가들은 작품이 진실의 기록에 동참하며 전통 문학 장르인 소설과 시가 감당하지 못하는 역할을 르포를 통해 훌륭하게 이뤄냈다"며 "본선 심사에 오른 5편의 작품 중 심사위원(황현산, 김진경, 임철우, 나희덕, 김형중) 만장일치로 본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